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욕망의 풍경들에 관한 회화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윤미

욕망의 풍경들에 관한 회화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 윤 미

인 준 서

김윤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작품들, 그 중에서도 2012년 ‘도시의 네온’이라는 본인의 석사학위청구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쓰였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욕망의 풍경을 접한 개인의 시선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시선은 이 시대의 사회구성원들이 인간 본연의 욕망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과 그 현상을 금지하고 은폐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사상에서 출발하는, 어쩌면 인간 본연의 심리와는 상반되는 사회적 금기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사회의 관념화된 생각을 인간 본연의 심리와 사회적 체제를 이해한다면, 이질적이지만 결국 보편적 사회현상과 다르지 않은 이 풍경들에 대한 본인의 시선을 담고 있다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이다.

본인이 바라본 모순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의문은 인간본성탐구와 이 사회의 선(善)의 개념, 우리 사회의 구조, 소외된 여성인권에 대한 관찰과 연구로 이어졌고, 결국 이것이 이번 작업의 시작점이 되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인지하지는 않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불연속에 다다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한계를 넘기 위하여 그와 닮은꼴을 생산하여 연속성을 추구한다. 자연계의 모든 생물이 이러한 생산을 지속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인간은 꼭 2세를 만들기 위해서만 관계를 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정신이 한계와 경계가 없듯이, 사람의 욕망 또한 그 끝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더불어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는 삶에 많은 의례와 금기를 심어놓았다. 각자 나름대로

의 이유를 가진 금기와 장려이지만, 사실 조금만 관찰해 보면 결국 이 문제는 종교 등의 이유로 포장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시대의 구성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선(善)과 악(惡)의 이분법적 개념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고, 선(善)의 개념을 벗어나는 대부분의 모순점에 대하여 악(惡)이라 판단한다. 인간의 본성과는 상관없이 사회가 규정하는 선(善)이라는 개념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욕구와 이성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죄의식을 갖는다.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선(善)의 개념과 반대로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한다. 우리는 그저 구경꾼일 뿐이다. 생산의 주체에서 소비의 주체로 전도된 사회의 구경꾼,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금기를 욕망하면서 방황한다.

본 논문은 인간본성에 대한 욕망을 철학적 배경에서 찾고, 사회 속 금기의 풍경을 하나의 기호로 조명해 봄으로써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의 이면적인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 터부 속에서 자신의 생(生)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성(性)이라는 노동을 제공하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관념의 제외자인 그들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했다. 인간본성에 속한 욕망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회화라는 도구를 통하여 예술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욕망의 풍경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내용적 연구	4
1. 욕망과 존재	4
2. 예술과 성 그리고 사회 속 금기	8
III. 형식적 연구	16
1. 기호로서의 풍경과 상징	16
2. 기법적 내용	19
3. 작품설명	21
IV. 결론	46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빨간집, 장지에 채색, 130×193cm, 2011	24
【작품 2】 영등포 85번지, 장지에 채색, 130×193cm, 2011	26
【작품 3】 영미미용실, 장지에 채색, 73×91cm, 2011	28
【작품 4】 팬티 보이는 여자, 장지에 채색, 162×104.5cm, 2011	30
【작품 5】 Hi!, 장지에 채색, 162×104.5cm, 2011	31
【작품 6】 오빠!, 장지에 채색, 162×130cm, 2011	32
【작품 7】 검정 원피스, 장지에 채색, 125×95cm, 2011	33
【작품 8】 킬힐, 장지에 채색, 125×95cm, 2011	34
【작품 9】 두 여자, 장지에 채색, 130×162cm, 2012	35
【작품 10】 미니스커트, 장지에 채색, 130×162cm, 2012	36
【작품 11】 분홍 드레스, 장지에 채색, 100×45cm, 2012	40
【작품 12】 검정 스타킹, 장지에 채색, 100×45cm, 2012	40
【작품 13】 핑크레이스, 장지에 채색, 38×45.5cm, 2012	41
【작품 14】 망사스타킹, 장지에 채색, 27.4×22cm, 2012	41
【작품 15】 속 보이는, 장지에 채색, 51.5×36cm, 2012	42

도판 목차

【도판 1】 에두아르 마네, 올랭피아, 캔버스에 유화, 130 × 190cm, 1863, 오르세 미술관 소장.

【도판 2】 신윤복, 청금상련 (廳琴賞蓮), 지본담채(紙本淡彩), 35.3 x 28.2cm, 18세기경, 간송미술관 소장.

【도판 3】 프리다칼로, 부서진 기둥, 캔버스에 유채, 40x30.5cm, 1944.

I. 서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후기 자본주의 시대, 급속한 기술개발에 의한 무한 복제의 시대, 물질만능주의의 소비시대,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삶이며 풍경일 것이다. 또한 개개인은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일탈의 자유로움만을 꿈꾸는 사회적 동물이 되어버린 이 사회가 현실이다. 스스로의 정체성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는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내면의 진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회가 된지 오래다.

공허하고 파편화된 개체로 이 시대와 함께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무분별한 성의 상품화를 제공하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관념의 제외자인 그들을 관찰하고 탐구하여 그 특성과 동일하게 이미지를 재현하고 표현하기를 시도해본다. 예술이 가진 소통의 기능을 통해 이 사회가 생각하거나 언급하기조차 꺼려하는 집창촌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그들의 과거·현재·미래의 여성인권을 두고 생각을 나누는 계기로 구상을 하였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국회에 가결되고 시행 된지 8년째, 이 법에 반대하며 업계종사자 여성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시위를 하였고, 이 모습은 다시 언론매체에 비취졌다. 조금은 과한 복장을 한 그들의 조직적 활동 모습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매체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사람들에게서도 잊혀져갔다. 본인의 머릿속에서도 희미해 질 때 쯤, 언론

에서만 접하던 그 여성들을 우연히 길을 걷다 마주하게 되었다. 시끌벅적하던 매체와는 상관없이, 콘서트 공연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한 조명이 켜진 골목의 투명한 유리문 안에 바비인형과 같은 뽀얗고 어여쁜 그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법과 함께 매춘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자리하고 있었고 본인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와 인간심리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 눈 내리는 겨울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에 발길은 서울 근교 집창촌 골목으로 향했고 그 곳에 대한 관찰은 계속되었다. 단속 때문에 불이 꺼지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미아리 집창촌도, 유리문 뒤 두꺼운 검정 커튼 넘어서는 쾌락을 파는 그녀들이 다소곳이 앉아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외설스러운 상상의 이미지는 소녀 같은 보드라운 살결과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현실의 실체와는 느낌이 참 많이 달랐다. 젊었을 적 유리문 안에서 웃음과 쾌락을 팔았을 법한 일명 펌프아줌마들은 이제는 지나가는 남자의 옷자락을 잡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고, 불이 꺼진 미아리 집창촌 골목에 자리한 포장마차에는 여전히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인간의 욕망과 자본주의사회가 만나고 인간사회와 맞물려 있는 집창촌의 구조, 형태, 이야기, 그리고 정부의 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들에서 이 특정한 사회현상으로 불리는 매춘은 어쩌면 아주 평범한 소비 욕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본 논문의 2장 내용적 연구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 될 수밖에 없는 욕망의 풍경 원리를 철학적 배경에서 찾고,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서술했다. 그리고 인간만이 갖는 금기의 특성과 함께 페미니즘의 성격과 유례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과 다른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과 이미지의 근거를 토대로 본인의 시선에서 시작된 의문과 작업 전개과정에서 느낀 바

를 공감하고자 하였다.

또한, 3장 형식적 연구에서는 본인의 작업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형태, 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들에서 발생하는 기호에 대해 다루었으며 사회적 언어로서의 시각이미지를 상징적 풍경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인 작업의 소재를 좀 더 공감하기 위한 기법적 고민과 연구에 대해 언급하고 석사학위청구전시 ‘도시의 네온’ 작품들의 표현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건물풍경>, <인물풍경>, <신체부분시리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회의 특정하게 여겨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생(生)을 연속시키기 위하여 성(性)이라는 노동을 제공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관념의 제외자인 그들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했다. 욕망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격에 대해 사회학적인 또 다른 인간본질에 대한 물음으로 전환시키고, 회화라는 도구를 통하여 표현한 본인의 작품을 형식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내용적 연구

1. 욕망과 존재

욕망의 문제는 철학에서 자주 문제화되었다. 왜냐하면, 그 본성은 의심할 바 없이 모순적이고, 모든 경우에서 모호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욕망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 그 발생 원리를 분석하고 더불어 이러한 철학이론을 살핌으로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욕망에 대한 문제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 : 1901-1981)¹⁾의 욕망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인 욕망은 무의식적이고 성적이며 욕망은 본질적으로 '타자의 욕망의 욕망이다'라고 하였다. 즉 타자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고 그것은 사회적인 욕망, 관계 속에서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술한 대중매체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욕망은 만들어지고 조종된다. 그러나 욕망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성취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현대 대량소비의 후기자본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소비는 욕망과 일치한다. 소비는 타자의 소비욕망을 모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처럼 욕망이론은 현대 소비사회의 취약함이나 허구를 그대로 짚어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욕망이란

1) 자크 라캉(프랑스어: Jacques-Marie-Émile Lacan, 1901년 4월 9일 ~ 1981년 9월 9일) 파리 출생으로, 전통적인 프랑스 정신의학에서 출발하여 프로이트(Sigmund Freud) 사상의 해석과 그 이론의 실천에 새로운 면을 개척한 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학자이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없다.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가치 가운데에서 욕망은 지극히 단순하고 피상적인 목적이고 가치인 것이다. 이것이 욕망의 문명이 지니는 특색이다.

19세기 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성본능이라는 욕망과 어우러져 과학이 아닌 문학의 영역, 아니 그 이상으로 확산된다. 인간은 유아기를 지나 사회적인 존재로 영입되면서 사회가 금기하는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프로이트는 이런 욕망들이 깨끗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억압되어서 무의식으로 남아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²⁾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라캉은 ‘욕망은 환유이다’고 보았고 대상은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에 인간은 대상을 향해 가고 또 간다고 하였다. 죽음만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이며, 욕망은 기표라고 했는데 이는 완벽한 기의를 갖지 못하고 끝없이 의미를 지연시키는 텅 빈 연쇄 고리로 비유하였다. 기표의 특성이 은유와 환유이듯 욕망의 구조도 은유와 환유라고 볼 수 있다. 욕망의 구조를 들여다보자면, 주체는 대상에게 욕망을 느낀다. 그것이 자신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만 얻으면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으리라 믿지만 그 대상을 얻어도 욕망은 여전히 남는다.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은 실재처럼 보였지만 허구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을 실재라고 믿고 다가서는 과정이 상상계요, 그 대상을 얻는 순간이 상징계요, 여전히 욕망이 남아 그 다음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게 실

2) 자크 라캉. 『욕망이론』.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94 : p13

체계이다.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킬 것처럼 보이는 대상, 즉 대체가 가능 하리라 믿는 단계, 이것이 압축이자 은유인 것이다. 그러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시 또 그 다음 대상으로 자리를 바꾸는 전치, 이것이 환유이다. 그러므로 욕망 역시 언어처럼, 무의식처럼, 은유와 환유로 구조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가 근본적으로 오인의 구조에서 출발한다는 것, 바라봄은 보여짐에 의해 분열된다는 것을 모르는 독선적인 주체,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고립된 주체는 심한 경우 역사를 광기로 몰아넣은 히틀러에 비유한다. 그래서 라캉은 주체를 결핍으로 보고 욕망을 환유로 본다. 그것은 주체를 대상에 대한 왜곡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오인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타자의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타자의식이 라캉의 이론이 지닌 미덕이라 볼 수 있겠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9-1984)³⁾의 <성의 역사>에서 '성'과 그것을 행하는 '인간' 그리고 그것들을 조직하는 권력(혹은 담론-힘 있는 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푸코는 "성은 억압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성의 역사는 오히려 선동과 증대의 역사이고 거기로부터 수많은 '말' 그리고 '권력 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성이 '억압의 역사'를 가진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어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는 성 관련 사건에서 정신분석가, 정신의학자, 범죄자, 성도착자, 재판관, 가족구성원, 학생, 선생 등이 등장하여 서로 권력관계를 맺게 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노동력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

3)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년 10월 15일 ~ 1984년 6월 26일)는 프랑스의 철학자이다. 그는 콜레즈 드 프랑스에 교수로 있을 때 '사상사'(The History of Systems of Thought)를 가르쳤는데, 이 과목의 이름은 그가 직접 붙인 것이다. 그의 글은 인문학, 사회과학의 많은 영역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게 되고, 불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게 하는 수업을 금지하게 하거나, 그것의 사례로 얘기되는 청교도주의나 금욕주의의 전개에 대해 푸코는 우선 의심했으며, 그 이면을 파헤쳤다. 그는 오늘날 서양인이 봉착한 난관 또는 정신적 위기의 책임이 육체를 폄하하는 '유대-기독교 전통'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푸코의 권력의 개념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권력은 주로 개인에 의해 실제적인 통제를 가하는 미시적 권력에 의해 달성된다고 보았다.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은 예전처럼 고문과 처벌에 의한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기보다 개개인에게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에 대한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학습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한다. 개인들은 모든 생활에서 여성이나 남성, 혹은 국민이나 시민에 대한 일정한 기준(規準)을 주입받게 되며 이를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한다. 개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개인이 사회가 제공하는 기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달성된다. 이렇듯 타인으로 인해 생각과 가치관, 행동패턴이 전달되기도 하는 것은 이들을 연결하는 근본적이고 무의식적인 동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⁴⁾

위와 같이 욕망은 그 원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삶의 동인(動因)으로서 욕망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욕망은 고통을 동반하며, 부족과 결핍의 감정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족을 거부하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의 욕망이 겨우 채워지자마자, 다른 욕망이 서둘러서 다시 생겨 다음과 같은 양가감정을 지닌다. 즉 욕망은 만족되기를 원

4) 미셸 푸코(Michel Paul Foucault). 『성의역사』. 이규현 역. 나남. 2004

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기도 한다.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이전하면서 욕망은 무 한정적이고, 켤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심지어 숙명적으로 근본적인 불만족상태 이기 때문이다.

본인 작업의 특정한 사회 현상으로 보는 매춘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점만으로도 그 특성과 역사를 알 수 있다. 이는 태고적부터 존재하는 욕망의 평행선으로 보여 진다. 이들의 구조, 형태, 이야기, 그리고 정부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연결 관계는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사회현상이 다른 나라의 사회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별다른 문화적 이질감을 찾아볼 수도 없다. 역사적 기록들은 이 현상을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절대군주, 도덕적 자경단, 경찰국가 할 것 없이 이를 근절하려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여성들의 성매매를 자극하는 요인은 매우 많다. 이는 경제적 요인과 인간 본성, 사회구조 등을 간과했으며 대신 여성이 매춘으로 향하는 근본 요인으로 그녀들의 부도덕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노동을 파는 곳에서 일부 여성과 남성이 성적 접대를 거래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사회인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언제나 나름의 성 산업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에서 성 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무면허 암시장 형태로 존재했다. 훨씬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더라도 매춘업의 가능성이 없는 고귀한 원시 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예술과 성 그리고 사회 속 금기

예술과 사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사회적 요인'이란 개념의 외연은 지리학적인 요인들, 경제적, 정치적 구조, 문화적인 배경 등을 포괄한다. 아놀트 하우스(Arnold hauser, 1892-1978)⁵⁾가 밝히고자 하는 관통하는 요추적 논제는 '사회적 요인이 예술을 결정 한다'는 것이다. 하우스의 논제를 조금 더 약한 방식으로 기술한다면, '특정 시대에 발현된 특정한 예술 양식과 개개의 예술 작품들은 환경적인 요인들과는 독립적인 예술가들의 재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논제의 부정형일 것이다. 즉, 예술은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우스에 따르면, 사회와 예술의 관계가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신석기시대이다. 전 시대, 즉 구석기 시대와의 분리가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여러 요인들 간의 혼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신석기 시대의 특징적인 사회적 요인은 신석기와 구석기를 가장 분명히 구분해 주는 기준인 농업의 탄생일 것이다. 신석기 시대엔 농경문화, 목축문화의 발명으로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는 개념적 사유의 발달로 이어진다. 수렵을 업으로 삼았던 구석기인들 에겐 개념적인 능력보다는 지각적인 능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반해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발달된 집단생활은 효과적인 분석과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적 능력이 훨씬 요구되었다. 물론 지각적 능

5) 아놀트 하우스(Arnold hauser, 1892년 5월 8일~ 1978년 1월 28일)는 독일계 헝가리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영국에서 살면서 미술사, 정신분석학, 예술 이론, 미학, 사회사, 문화사, 미술심리학 등의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든 미술사학자이다. 하우스는 예술의 형식적인 면에 가치를 두었으나, 사회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예술사회학자로서 관심을 가졌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예술에 대한 지식과 오랜 기간 동안의 영화산업에 있어서의 활동은 그가 예술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자율적으로, 다른 면으로는 사회 현상으로 보게 해 주었다.

력과 개념적 능력을 구분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지각적 능력이 개념적 능력에 의존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여도, 구석기인들에게 요구되는 개념적 사유와 신석기인들에게 요구되는 개념적 사유는 질적, 양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개념적인 사유 체계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낳는다. 추상적인 사유를 통해야 비로소 현상적인 세계와 개념적인 세계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신석기인들의 애니미즘적인 종교관을 낳은 원인이다. 지각적인 세계와 구분되는 본질적, 초월적인 세계는 신석기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초월적인 세계가 현상적인 세계를 관장한다는 가설만이 그들에게 현실 세계의 변화무쌍함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동경이 발현되는 수단이 바로 예술이다.

인간의 욕망은 평상시에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욕망이 팽창하게 되면서 금기를 뚫고 외부로 분출될 기회를 찾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금기에 교육되어진 인간은 그 경계를 넘어서기에 앞서 많은 갈등을 겪는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특정한 행동양식과 수치심, 불쾌감의 수준을 강요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인간은 이것을 마치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 외부로부터 강제되었던 행동과 감정의 구조는 점차 내면화되어 사회 내에서 '양심'의 모습을 띠게 되며, 자율적으로 다음 세대에도 강요되어 진다.

인간의 욕망이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었던 고대에는 인간의 욕망이 좀 더 솔직한 모습으로 표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대인에게 죽음이나 탄생, 식량의 획득이나 사냥은 그들의 일상과 직접 닿아 있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신성한 어떤 것'에 대한 고대인들의 인식은 종교적인 충동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것을 우리는 원시 동굴의 벽화나 고대 부족들의 조각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대인들은 자연의 표상물인 태

양, 달, 불, 물 등이 절대적인 힘이라 생각했으며, 이들을 신으로 여기게 되었다.⁶⁾

그들은 이러한 절대적인 힘과 접하길 바랐으며, 인간의 능력과 하나로 결합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신성한 신의 영역을 경험하는 것은 일상을 벗어나는 일이었으며, 특별한 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고대인들은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제의를 만들어 냈다.

일상적인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경험에 대해서는 금기와 위반을 통해 초월적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 1897-1962)의 사상을 예로 들자면 그가 말하는 에로티즘은 인간의 성행위를 예로 들어 설명하게 되는데 성행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의해서 초월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초월의 경험은 인간에게 매력적인 것이었으며 예술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성행위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성향은 미술사에 등장하는 여러 작가의 작품 안에서 중심주제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겪는 이중적인 상황에 대해 탐구하고,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과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평안과 이성의 세계를 가능케 하는 터부란 그런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터부는 원칙적으로 폭력이 그렇듯이(인간의 폭력은 본질적으로 계산이 아닌, 분노, 공포, 욕망 등의 감정 상태에서 비롯되지 않던가.) 그 자체로는 지성이 아닌 감성에 호소한다. 금기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무시하는 논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금기의 비합리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⁷⁾

에로티즘이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그것이 폭발적인 충동을 낳

6) 레오나르도 아담. 『원시 미술』. 김인환 역. 동문선. 1999 : p115

7)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 조한경 역. 밀음사. 2011 : p72

고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연속적 생명체인 인간은 번식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연장시키려 하지만 a의 자손은 a일뿐 결코 a 그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번식은 곧 비연속적 생명체의 소멸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번식을 전제로 하는 에로티즘은 죽음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번식이 가져오는 <죽음(폭력)>만이 에로티즘의 모든 근원은 아니다. 인간 에로티즘의 유일한 목적이 번식이라면 그것은 동물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타이유는 <에로티즘>에서, 폭력보다도 <금기의 존재, 그리고 그것의 위반>을 더 큰 에로티즘의 추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기가 강력할수록, 그것을 파괴했을 때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쾌감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바타이유는 결코 금기의 위반이 금기의 소멸 혹은 무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위반이란 금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금기를 한번 걷어 올리는 행위이다." 에로티즘과 마찬가지로 금기는 인간만이 갖는 특성이 다.

인간의 성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한을 받을 뿐이다. 그러나 그 제한이라는 것도 상당히 가능한 영역을 보장받고 있다. 사실 규칙에 의해 정해진 경계 내에서의 성행위의 역사가 에로티즘의 역사는 아니다. 에로티즘은 <규칙위반 infraction aux regles>의 영역을 포괄한다. 동물의 성행위와 같은 성의 유희에는 에로틱한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다. 물론 에로티즘은 분명히 잡아내기가 어렵다.) 에로티즘은 기존의 성행위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합법에서 금기로의 이행이다. 인간의 성생활은 합법의 영역이 아닌, 저주, <금기> 영역에서부터 비롯된다.⁸⁾

8)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의 역사』. 조한경 역. 민음사. 1998 : p170-171

기본적으로 인문학에서는 성은 삶에 대한 욕망, 생산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죽음을 의식한 개념의 상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타이유는 유독 인간만은 성행위를 에로티즘으로 승화시켰다고 이야기한다. 생식과는 달리 에로티즘은 풍요롭고, 짝 찬 삶이라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로티즘은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모든 연속성에 대한 도전, 금기와 위반을 저지르는 인간으로 볼 수 있지만 금기를 행위로 보여줌으로써 그 금기들의 터부를 건드릴 수도 있다.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욕망으로 인한 금기의 풍경과 함께 페미니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소재 자체에서 그 성격을 볼 수 있으며 본인이 표현한 이미지 중 <인물풍경>에서 사회적 섹스심벌(sex symbol)의 표현으로 인물들의 의상이나 포즈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이란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결성된 운동을 얘기하는 것으로 '여성 신장론'이며 '여성해방운동'을 전제로 한 여성문제의 접근방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것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는 하나의 이론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단일 이론 혹은 단일 사고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되며 또한 정의에 있어서도 복잡하다. 즉 페미니즘을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그 범주를 단순화시켜서 유형화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⁹⁾

'여성주의 미술'(Feminist Art)이란 여성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식적인 차원에서 여성성을 강조하고 여성문제를 주제로 한 미술을 말한다. 이른바 'Feminism'의 내용을 미술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9) 김선남. 『매스미디어와 여성』. 범우사. 1997 : p23-25

현대 페미니즘은 서구의 이성 중심적 세계관이 자연을 지배하는 문화로서의 남성 지배사회를 부추기는 역할과 가부장적 성별 위계질서를 규범화한다고 보는 20세기 문화 현상의 한 기류로서, 근본적으로 성차(Gender)에 의한 억압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그로부터의 해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여성을 생물학적 역할을 하는 자, 자연을 대변하는 이미지, 그리고 종속의 상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여성을 물질적·성적·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게 되는 기존의 모든 인식에 저항하는 바탕이 되었다.

멕시코의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¹⁰⁾는 19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세계인들에게 재발견되었다. 그녀의 그림이 표현하는 솔직 담백한 여성성과 섹슈얼리티를 후세의 페미니스트들이 높이 평가한 것이다. 프리다의 개인적 고통을 채우려는 욕망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 또한 고통의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그 욕망 자체는 존재의 증거이기도 하다. 그녀의 고통에 대한 자각은 육체적 고통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녀의 작품에서 산산이 부서진 육체나 피, 보기 거북한 장면들도 추하거나 당혹스럽기보다는 깊은 감동을 준다. 굳이 그녀의 생의 역정을 모르더라도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흥은 더욱 강렬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자면 [도판1]은 비록 얼굴에 눈물은 맺혀 있지만 고통을 참고 있는 근엄한 표정으로 사고 후 20여년을 거치면서 인내하는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종교적이고 성적인 이미지를 동원하여 캔버스에 표출해 놓은 것으로 일종의 카타르시스와 같은 쾌감을

10)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년 7월 6일 - 1954년 7월 13일)는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이자, 공산주의자이다. 멕시코의 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상징주의와 멕시코의 토속 문화를 결합한 화풍을 창시한 것과, 멕시코로 망명했던 레온 트로츠키와의 인연,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교통사고를 겪은 뒤, 평생을 이로 인해 고통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멕시코의 화가이자, 혁명가였던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였다.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이 프리다의 작품에서 관심을 갖았던 부분은 이러한 페미니즘적 요소가 본인의 작품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서구미술사에 나타난 대부분의 여성 이미지는 중세의 인류 타락(원죄)에 대해 누구보다도 책임이 있는, 유혹하는 이브로부터 바람직한 여성형(처녀와 어머니) 및 억압하여 교화시켜야 하는 여성형(매춘부, 괴물, 마녀)과 같은 다양한 여성적 상투형들을 만들어 냄으로서 남성 지배문화를 뒷받침 하는 기표들로 구성되어 왔다. 마네의 [도판2]작품은 당시의 그림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그 시대의 대부분의 화가들은 여성 누드를 그리되 이상화된 비례로 여신이나 요정들을 묘사하여 그 여성이 신화나 역사 속 인물임을 각인시키는 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랭피아>는 현실적인 그 시대의 파리 여인을 그린 것으로 누드모델은 매춘부였다. 이 그림의 주제와 표현은 1865년 살롱전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그가 살던 시대의 창녀를 모델로 하여 동시대의 인간상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올랭피아>는 현실 속의 여성을 통하여 그녀를 통해 차갑고 세속적인 당시 사회의 실체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양의 마네의 작품과 같이 언급할 수 있는 동양 작품으로 혜원(蕙園) 신윤복의 [도판3]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조선적인 사회구조와 억매인 틀에 벗어나는 주제, 현실 속에서 본 사회상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평가되는 청금상련(廳琴賞蓮)은 [도판2]와 함께 본인의 작업 소재와 표현 목적에 있어서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구의 여성이미지에 반해 한국 사회를 거슬러 올라가 여성 이미지와 인권을 살펴보면 신라시대 선덕여왕과 진성여왕의 존재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여성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천대받지는 않

왔다. 그러다가 조선에 들어와서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삼으면서부터 여권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선전기 여성들은 상속에 있어서 남자형제와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집간 후에도 아내의 재산권은 철저히 보장되었고, 유교사회의 핵심적인 사업인 제사권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조선전기에 여성은 집안에서 아들과 마찬가지로 존재했으며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이후 여성의 지위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유교의 가부장적 종법질서(宗法秩序)가 확립되면서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7세기를 기점으로 여성들은 제사권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도 아들들과는 차별되었으며, 시집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간 재산에 대해서 독자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시기에 와서는 여성들은 독자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고 부수적 혹은 보조적 역할 밖에는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본 논문은 여성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오던 여성의 역사를 사회적 측면과 미술사적 맥락에서 고찰하고, 더 이상 이 사회의 현상이 주류문화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개별적인 사회 현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인 작업의 건물풍경 중 <영등포85번지>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인 성매매 장소와 타임스퀘어가 밀접한 장소에 벽 하나만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질적으로 보이는 그 곳이 사실은 욕망을 소비하는 동일한 역할의 장소라 생각되어 표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공간이 인간 본성을 파고들면 동일한 목적의 장소라는 모순을 표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역사 속에 자리한 편협된 여성의 인권

과 기존의 모든 인식에 저항하는 요인들에 대해 탐구하였고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회화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Ⅲ. 형식적 연구

1. 기호로서의 풍경과 상징

현대사회에서 기호¹¹⁾는 언어를 대리한다.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는 1970년대 서구사회를 특징짓는 상징체계로서 마르크스가 주목했던 생산, 노동, 교환가치 등의 문제를 소비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현대사회의 특징을 '소비사회'로 규정하게 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본격화된 대중문화와 복제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새로운 세계가 가져온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물들이 갖는 새로운 의미에 주목하였다.

보드리야르의 분석에 의하면, 오늘날 사물들은 과거처럼 사용가치나 상징가치보다 '문화적 기호로서의 가치'가 중요해졌다. 사물들은 하나의 기호이고, 그 의미와 기능을 전체 기호체계 안에서 종합적으로 부여받는다면, 소비의 개념도 역시 그 기호체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소비는 하나의 사회적 언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소비자의 필수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들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이 소비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게 됨에 따라 대중매체는 소비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광고를 통한 기호의 창출에 나서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광고 상품이 아니라 기호 그 자체가 되며, 구성원들은 기호를 욕망하고 기호를 소비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사

11)기호: 소쉬르와 그 후의 구조주의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 사이의 자의적(관습적) 관계의 산물로 본다. 기호학은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기호체계에 대한 일반 연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소쉬르의 언어학 모델에서 단서를 얻되 궁극적으로는 언어학을 넘어선다.

회가 그가 말하는 소비사회이다.¹²⁾

이처럼 본인의 작품에서는 기호학적인 관점으로 단순한 인물과 풍경의 재현이 기록이 아닌 ‘기호로서의 풍경’, ‘기호로서의 인물’로 전환시키고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은 소비자 욕구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불러온다. 소비는 이미지, 기호, 상징상품을 사용하여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자아도취적으로 즐겁게 하는 환상, 꿈,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탐욕적인 욕구, 보다 많은 것을 바라는 지속적인 욕망과 보다 많은 욕망의 지속적인 생산은 정상적이며 사회, 경제적 질서와 발전에 필수적이다. 탐욕 개념은 '방탕', '과잉'의 개념으로 보던 근대의 관점을 넘어서, 소비자 욕구에 의한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라는 새로운 역동성을 의미한다. 인간이 지닌 소비욕망은 인간의 속성에 자리 잡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본인의 작품은 소비의 욕망이 만들어낸 현실풍경의 재현으로, 일상적인 소비의 세계이지만 현대사회가 보이기를 꺼려하는 금기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욕망을 소비사회의 도상으로서 제시하고 이를 다시 소비하려는 사람들의 풍경을 재현하였다. 하지만 시각예술의 생산자로서 본인은 시각예술만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금기시 하는 인간의 소비에 대한 욕망의 풍경들을 표현함으로써, 현실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세계이지만 버젓이 존재해온 세계를 나타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소비사회로써 물질적 소비를 통한 행복의 권리를 예찬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 증대를 통해 산업문명이나 체제에 대한 불만, 무력감, 갈등 등을 해소하도록 유도한다.

본인은 본인의 작품을 통하여 금기된 사회문화를 재현하고, 금기로부터

12) 최광진. 『현대미술 전략』. 아트북스. 2004 : p163

벗어나려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것을 보는 소비자-관람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뿌리내려버린 이런 사회문화를 억제해야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본다.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소비하는 풍경을 마주하면서, 이 소비현상을 부정적 사회문제로 상기시키고 금기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을 보며 관객과 함께 생각하기를 권한다. 이러한 풍경을 예찬하는 것이 아닌, 조선시대부터 내려져온 사상과 유교 문화, 서구화의 영향을 받은 사회경제체제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는 이러한 사회문제-우리가 만들어낸 이 문제들에 대해 금기시키고 소외시키는 우리들의 태도에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해본다.

본인 작품 속 소비사회의 인물들은 경계가 또렷하지 않은 모호함으로 표현된다. 선은 사물의 형태를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여 표현 할 수 있으면서도 종합적인 조형적 표현의 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경계가 또렷하지 않은 몽환적인 인물표현은 실제 인물들의 존재를 표현 기법과 함께 동일하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존재하는 인물이지만 사회의 규율 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들을, 욕구의 소비자들의 기억에는 그녀들은 하나의 기호(嗜好)이고 소비도구이지 한 명의 인격으로서 그들의 얼굴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에 경계 없이 명암과 형태를 통해 표현했다.

본인 작업 중 건물작업은 하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은 실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현실공간을 재현한 것으로 작가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고 표현함으로써, 이 사회 속 누군가의 손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된 하나의 상품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는 기계적인 복제의 방식이 아닌 작가의 수공예 의한 작업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소비대상물의 소모성을 상징한다. 결국 본인의 작업은 대상의 재현적인 표현뿐만 아

나라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 속의 어떤 생각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본인에 있어 작업이란 예술가의 내부를 가시화시킴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예술적 개념을 발견하는 부분에 있다고 본다.

2. 기법적 내용

고대에는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습득하기 힘들어서, 종교의 전파나 알림의 의미로 기호나 그림을 사용하였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공감하기 쉬운 상징성을 부여한 셈이다. 이는 글자보다는 그림을 볼 때 사물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상적임을 알 수 있다. 본인은 화면의 기호를 통해 관람자들에게 기호의 기억성과 의미전달을 시도하였다. 화면은 하나의 시지각(視知覺)의 장으로 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의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즉, 화면은 직접적으로는 회피하고 숨기려하는 사회문제를 미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대면할 수 있게 해 주고, 관객이 회피하려고만 했던 이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더 빠르게, 더 쉽게 모든 일을 하려고하며, 의사전달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한 사물이 다른 사물과 연결되어 만나면 감추어진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의미로 변모하기도 한다. 이런 기호들은 서로 소통하고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글을 그림으로 그려나가듯이 기호와 관객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기호의 생성과 유사함(Web of association)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하나의 이미지

를 관찰할 때 관람자의 경험, 전시 장소, 기호, 본래의 의미 등 여러 변수가 작용되어 생성되고 소통하는 것이다.

체부분들로 나누어 기호(記號)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그 존재성의 의미를 표현기법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작품표현기법에 있어서 붓의 흔적을 최소화하였는데 이는 작업하는 본인의 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리고 <인물풍경>에서는 의식적으로 붓의 터치를 자제하고 장지의 특색을 살려 번지는 기법으로 풍경의 모호함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사창가의 거리와 인물의 연구에 의한 것이다. 그 곳에는 특유의 화려한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다. 빛은 사물을 지각하고 투명한 존재로 만드는 수단이지만 화려하고 은밀한, 인위적인 조명은 오히려 대상을 희미하고 연약하게하며 불투명하게 나타낸다. 그런 인물들이 갖는 성격 중 하나는 현실공간에 존재하면 안 되는 유령 같은 존재들-그들의 화려한 조명아래 있는 어두운 밤 시간이 지나면 유령처럼 사라지는 낮과 같은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번지는 기법을 이용해 그들의 존재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물들이 갖는 성격 중 두 번째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法)의 영향을 크게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해 나간다는 것에서 사회규범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의 명령, 규칙,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법의 경계는 이 곳 까지 다다르되 소멸시킬 수 없는 사회 문화가 되어 버렸다. 그러한 규범과 경계가 없음이 두 번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체시리즈>에서 신체의 부분을 표현한 것은, 관찰과정 중 욕망의 소비자의 인터뷰에 의한 것으로 여성의 신체부위 중 한 곳은 소비자의 하나의 기호(嗜好)임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의 기호(嗜好)에 의한 기억을

상징적 신체 부분으로 묘사하였고, 이 또한 모호하게 번지는 기법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사창가를 찾는 소비자의 보편적 특성 중 술을 마시는 행동에서 비롯된 그들의 기억이 또렷하지 않음을 동시에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 작품설명

본인의 작업은 현대소비사회에 우리에게 금기된 소비행위의 풍경을 소재로 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터부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 본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의 철학을 빌려서 논하자면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도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대해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¹³⁾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본인의 작업방식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해는 곧 판단과 연관된다. 이해와 판단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며 접근과 거리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해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난관이자 임무인 셈이다. 이는 상실된 과거의 연속성 속에서도 역사해석의 침전층 아래 숨겨져 있는 현상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작업의 과정은 유한성이나 사멸성이라는 인간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의 위대한 행위(위대한 인간의 행적이 아닌)에 대한 기록(작업)을 통해서 불멸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기억하고자

13) 리처드 J. 번스타인.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문제』. 아모르문디. 2009 : p200

했다. 또한 “생각의 무능성,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을 작업하는 것에 대입하여 보편적인 사람들의 판단의 무능성을 찾아보았다. 판단능력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됨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됨의 원리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좋은 삶을 나누는 근거로서의 인간됨이라는 것, 기꺼이 행위하고 말하려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악(惡)의 평범성 개념이 말과 사유를 하지 못한다는 평범히 발견되는 사실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매춘부에 대한 평가가 ‘사유의 불가능성’에 있었지만 그에 대한 해명은 우리의 터부에서 오는 오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개별과 보편을 통합하는 판단이 가능한가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고, 나아가 본인의 작업이 자본주의 사회현상 아래의 타당성을 드러내주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본인의 작품세계는 크게 세 가지 시리즈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건물풍경>, 두 번째는 <인물풍경>, 세 번째는 <신체부분시리즈>이다. 본인 작품들의 모든 관점이 공유하는 한 가지 가정은 '욕망을 소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소비를 통해 단순히 신체를 재생산하기보다 특별하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한다. 우리는 숙련된 사회적 행위자로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며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한다. 사람은 본래 쾌락을 추구하는 자립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 쾌락주의의 특징은 상상 속에서 창조하여 즐기는 쾌락을 실제로 경험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끊임없는 새로움의 소비를 낳는다.

소비는 단지 지위를 향한 욕망에 의해서만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쾌락주의, 도피주의, 환상과 새로움이나 정체성, 가치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도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본인의 작품을 통해 오늘날의 '욕망의 사회적 소비풍경'이라는 주제로 기호로서의 성과 여성, 욕망의 장소를 하나의 상징과 기호로 제시해 본다.

다음은 본인의 작품을 각 시리즈별로 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빨간 집>은 본인 작품 전체의 출발점이다. <건물풍경>은 현존하는 공간인 동시에 밤이 되면 그곳의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환경과 밀접하게 공생하고 있는 공간이다. 건물은 장소와 일정한 설계에 따라 인위적인 성격이 가미되기 때문에 생산가능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용도에 따라 건물의 의미는 변화가능하다. 본인은 일정기간동안 영등포의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관찰하며 일반인들이 회피하고 소외시키는 장소와 건물을 기록해 보았다. 관찰 과정 중에 다소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금기의 지역은 아니었다. 오히려 본인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서 어려움을 더 깊이 느꼈다고 생각된다. 물론 관찰자인 본인이 다가가고 공감하는 것에 있어 경계와 한계는 분명 있었다. 사유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위치의 특성상 모든 것을 사유할 수 없었음을 인정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낮에는 하나의 건물군에 지나지 않았지만 밤이 되어서는 그 현란함과 욕구를 자극하는 기호로서의 여성들이 자리하는 특정의 장소로 변하는 건물 풍경을 다뤄보았다.



【작품 1】 빨간집, 장지에 채색, 130×193c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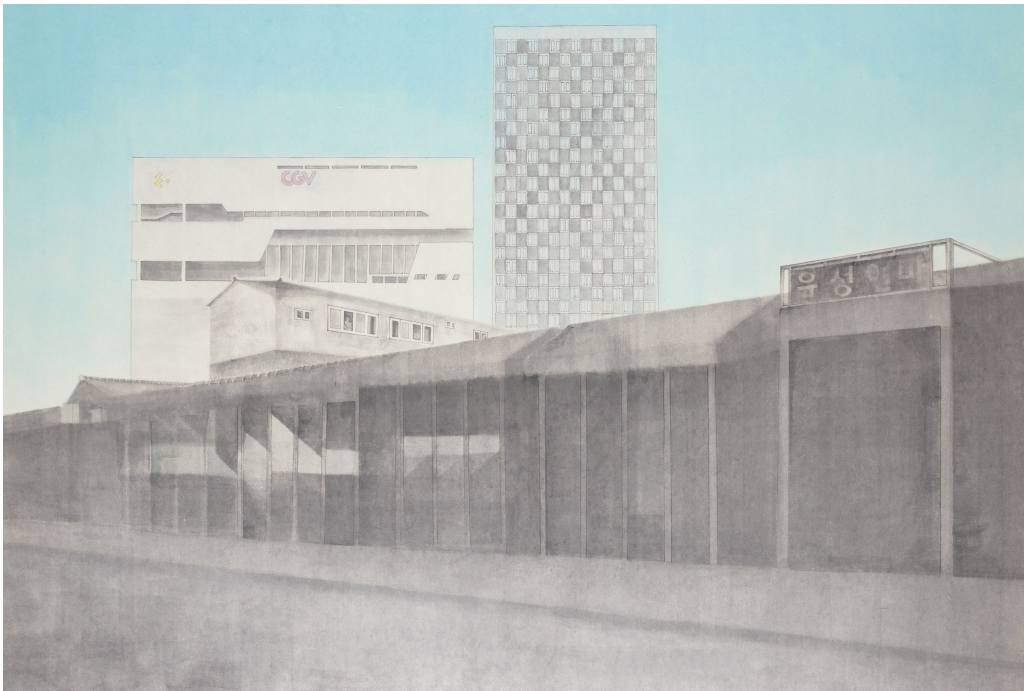
【작품 1】

제목 : 빨간집

재료 : 장지에 채색

크기 : 130×193cm

2002년 1월29일 한 성매매 업소에서 작은 불이나 당시 14명의 매춘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가게의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나오지 못한 여성들이 연기로 인해 숨지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 일대는 인근 지역의 개발과 함께 급속히 낙후되기 시작했고, 거리는 슬럼화 되었다.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8년째, 본인은 우연히 빨간 조명이 켜진 집을 마주하게 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사라졌을 것만 같던 사창가는 그 존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듯 새빨간 조명을 새벽이 오도록 켜놓고 있었다. <빨간 집>은 본인 작품 전체의 출발점이 되었다. ‘욕망’이라는 단어를 색으로 표현하자면 ‘빨강’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욕망이 소비되는 이 거리의 풍경과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집의 조명과는 확연히 다른 이 빨간 집의 정체와 존재는 처음 접하는 본인에게는 낯설고 새롭게 다가왔다. 법에 의한 규제와 추운 날씨로 인해 드물게 켜져 있던 이 빨간 풍경은 밤의 적막함과 동시에 장소의 특성을 의미하는 기호로써 존재했다.



【작품 2】 영등포 85번지, 장지에 채색, 130×193cm, 2011

【작품 2】

제목 : 영등포 85번지

재료 : 장지에 채색

크기 : 130×193cm

영등포 85번지라는 【작품 2】의 장소는 골목 하나의 차이로 대형 쇼핑센터와 집창촌이 공존하고 있는 장소이다. 금기의 장소인 영등포 85번지와 자본주의의 산물인 대형쇼핑몰은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심리를 바탕으로 보자면 욕망을 소비하는 동일한 목적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낮으로, 밤과 다르게 검정 천막이 치진 초라하고 허름한 건물과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과의 대비를 보여준다. 해가 떠 있는 낮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으로 과량게 표현된 하늘과 대형건물들은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다. 또한 【작품 1】에서의 밤의 풍경은 【작품 2】의 낮과 함께 그 상징을 대비시켜 보여 줌으로서 동일 장소의 시간에 따른 차이점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작품 3】 영미미용실, 장지에 채색, 73×91cm, 2011

【작품 3】

제목 : 영미미용실

재료 : 장지에 채색

크기 : 73×91cm

우리 생활에서의 섹스 심벌(sex symbol)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다. 【작품 3】은 매춘부 여성들이 현대인에게 익숙한 매체들을 통해 이 시대의 섹스 심벌(sex symbol)화 되어 있는 여성의 이미지로 변신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인간의 무의식의 이미지, 기호, 상징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소로서의 미용실은 그녀들이 거쳐 가야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섹스심벌로서의 인물들은 소비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기호들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이 소비의 논리에 의해 인물들은 기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미용실이라는 장소의 분장과정을 거치게 된다.

캔버스는 본인의 비판적인 시각과 동시에 동정어린 시각이 섞여있는 소통의 장이 되고 환경적, 인간적으로 오염되어가는 이 사회를 보다 편협되지 않은 객관적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고자 하는 유희와 화합의 의지로 표출되어지는 것이다.

급속도로 발전하기만 하는 이 사회는, 그 속도만큼 탁해지고 냉정해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매체나 터부들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와의 정신적 교감으로 승화시킨 작품은 결국 소외된 계층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가능성의 한계를 넓히려는 것이다.



【작품 4】 팬티 보이는 여자, 장지에 채색, 162×104.5cm, 2011



【작품 5】 Hi!, 장지에 채색, 162×104.5cm, 2011



【작품 6】 오빠!, 장지에 채색, 162×130cm, 2011



【작품 7】 검정 원피스, 장지에 채색, 125×95cm, 2011



【작품 8】 킨힐, 장지에 채색, 125×95cm, 2011



【작품 9】 두 여자, 장지에 채색, 130×162cm, 2012



【작품 10】 미니스커트, 장지에 채색, 130×162cm, 2012

【작품 4】 팬티 보이는 여자, 장지에 채색, 162×104.5cm, 2011

【작품 5】 Hi!, 장지에 채색, 162×104.5cm, 2011

【작품 6】 오빠!, 장지에 채색, 162×130cm, 2011

【작품 7】 김정 원피스, 장지에 채색, 125×95cm, 2011

【작품 8】 킬힐, 장지에 채색, 125×95cm, 2011

【작품 9】 두 여자, 장지에 채색, 130×162cm, 2012

【작품 10】 미니스커트, 장지에 채색, 130×162cm, 2012

<인물 풍경>의 인물들은 현대인에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영향 받은 걸 그룹이나 가수, 연예인처럼 익숙한 이 시대의 섹스 심벌(sex symbol)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섹스 심벌(sex symbol)은 일반적으로 성적 매력이 있는 배우, 음악가, 모델, 아이돌, 스포츠 스타와 같은 유명인을 가리키며, 섹스 심벌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중반 마릴린 먼로¹⁴⁾와 브리짓 바르도¹⁵⁾ 같은 할리우드 스타가 인기를 얻으며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누군가를 붙잡고, 그 사람에게 섹스 심벌의 대표자를 물어보면 사람들은 최소한 단 한명 또는 그 이상을 말한다. 이처럼 매체의 대중화와 디지털의 보편화로 인해 우리 생활에서의 섹스 심벌 또한 보편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이미지, 기호, 상징상품을 사용하여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자아도취적으로 즐겁게 하는 환상, 꿈, 욕망을 불

14) 마릴린 먼로 (Marilyn Monroe, 1926-1962) 영화배우 겸 가수. 1950~1960년대 초기 상업적으로 성공한 여러 영화를 통해 대표적인 섹스 심벌이 되었다.

15) 브리짓 바르도 (Brigitte Bardot, 1934) 영화배우 겸 가수. 프랑스 파리 시 태생의 배우로 1950년~1960년대를 풍미한 섹스 심벌로 알려져 있다.

러일으킨다. 매체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욕망을 자극하는 기호들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이 소비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게 됨에 따라 빨간 조명 아래 그녀들 또한 마치 걸 그룹이나 섹스 심벌이 된 가수나 연예인과 같은 의상과 분장을 한다. 그리고 이 사회의 섹스 심벌이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천장에는 형형색색(形形色色)의 조명들을 켜고 기호(記號)로서의 그녀들도 포즈와 제스처를 취한다. 이는 욕망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기호(嗜好) 그 자체가 된다. 기호(嗜好)를 소비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한 자락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건물 이미지들이 현실의 의미를 잠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기호(記號)역할이라면, 이런 건물에 살고 있는 인물들은 가시적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현대인을 대변하는 기호(記號)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의상과 포즈는 욕망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기호(嗜好)가 된다. 본인은 관객들이 전시된 작품을 볼 때, 소비의 순간을 불러일으키도록 당시의 풍경을 재현했다. 그 곳에 있던 인물들의 의상과 포즈, 조명, 시선 등은 기호(嗜好)로서의 그녀들을 완성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한다. 특히, 인물들이 신고 있는 특별한 신발은 선호하는 기호(嗜好)를 맞추기 위한 그들만의 보조 물품이자 새로운 부분이다. 그리고 작품 제목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이들의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인물이 존재하는 공간의 알록달록한 커튼과 화려한 타일들에서도 장소의 특성을 알려주는 기호(記號)를 읽을 수 있다. 그런 작업에 있어 표현방법이 흐릿하고 몽환적인 이유 중 하나는 스쳐지나가는 본인의 발걸음과 시선을 그대로 담으려는 시도 때문이다.

다른 작품과 차이점을 둔 【작품 9】는 빛의 일루전(illusion)을 이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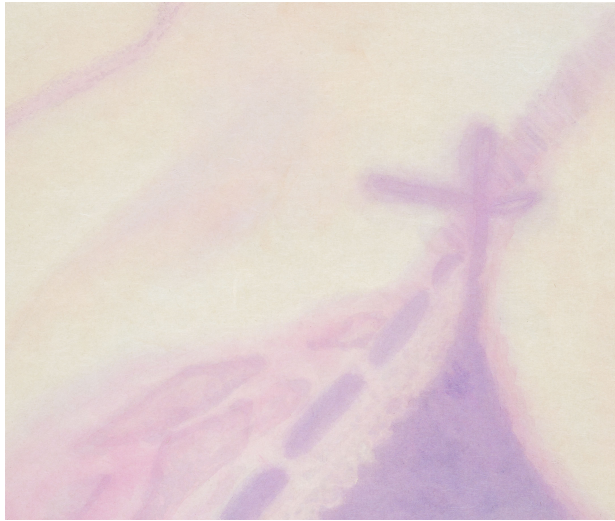
여 형(型)을 깨는 시도를 해 보았다. 선명한 경계가 없어도 색과 빛의 표현만으로 흥등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인물 표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지의 특색과 빛의 현상을 이용해 번지고 모호하게 표현하여 몽환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선호도에 의한 섹스 심벌로 형상화하기 위해 인물들 대부분이 유리문 안에서는 자신의 캐릭터에 어울리는 가명을 쓴다.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익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법을 연구하고 새롭게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이처럼 스스로의 눈으로 본 현실을 회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중적인 의미의 인물을 하나의 기호(記號)로써의 풍경으로 승화시켜 본 것이다.



좌) 【작품 11】 분홍 드레스, 장지에 채색, 100×45cm, 2012

우) 【작품 12】 검정 스타킹, 장지에 채색, 100×45cm, 2012



【작품 13】 핑크레이스, 장지에 채색, 38×45.5cm, 2012



【작품 14】 망사스타킹, 장지에 채색, 27.4×22cm, 2012



【작품 15】 속 보이는, 장지에 채색, 51.5×36cm, 2012

【작품 11】 분홍 드레스, 장지에 채색, 100×45cm, 2012

【작품 12】 검정 스타킹, 장지에 채색, 100×45cm, 2012

【작품 13】 핑크레이스, 장지에 채색, 38×45.5cm, 2012

【작품 14】 망사스타킹, 장지에 채색, 27.4×22cm, 2012

【작품 15】 속 보이는, 장지에 채색, 51.5×36cm, 2012

<신체의 부분 시리즈>는 에로티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에로티즘은 성욕(sexuality)과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성애에는 특별한 즐거움을 위한 역량, 즉 성감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신체 부분들이 흥분과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한 기억 및 환상과 만날 때, 그 부분들이 흥분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이트는 성감을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고 신체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치될 수 있는 양적 요인으로 가정했다. 신체와 그 부분만으로 하나의 기호가 되고 다른 정신적 및 생물학적 체계로 확산되어 자기개념과 대상개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의 개념을 관능적인 요소로 물들인다. 다양한 지각, 상징, 또는 환상이 신체의 특정 부분들에 의해 발생될 때 이 신체 영역의 심리생물학적 유형과 기능은 성격 발달과 증상 형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본인은 이번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욕망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인터뷰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호(嗜好)에 맞는 곳에서 그들의 욕망을 소비하였고, 대상 자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기호(記號)이기에 상대의 얼굴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어느 신체 부분이나 의상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러한 특성에 집중하여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억과 환상의 잔재를 <신체의 부분 시리즈>로 표현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품은 누군가에게는 특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일 수 있는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 누군가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자신들의 욕망을 소비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사창가에 가서 그들의 욕망을 소비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주 관찰 장소였던 영등포역 근처 사창가 담장 너머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존재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질적인 공간 같지만 기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사창가는 끝없는 욕망을 소비하는 공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소비자가 다르고 욕망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신체의 부분 시리즈>의 또 다른 작업방법으로 【작품 11】과 【작품 12】는 욕망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포즈의 신체부분을 표현하였고 표현재료로 분채와 함께 먹을 사용해 보았다. 【작품 14】의 소재인 망사스타킹은 그 물체 하나만으로도 욕망의 기호(記號)인 동시에 사회적 기호(記號)가 되어 본인 작업의 소재로 이용되었다. 남성이 갖는 욕망의 이상향의 상징적인 속옷의 부분을 몽환적으로 표현해서 그들이 갖는 상상과 왜곡된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기억을 재생하기도 하고 장소에 따른 기호(記號)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느끼도록 의도하였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개인의 시선에서 출발하였다. 인간 본연의 욕망을 찾는 소비의 과정을 관찰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없는 <인간 욕망의 심리구조>를 철학적 배경을 통해 알아보고 시대에 따른 여성인권을 추적해 보았다. 이와 함께 역사적 사실과 위와 같은 이론을 토대로 특정하게 여기는 사회현상이 결코 없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편협 된 사고들로 인해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들의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본인 작업의 타당성을 사회적 요인과 예술의 관계로 대변함으로써 설명하고자 하였다.

장소, 사물, 사람의 포즈 등은 하나의 기호성(記號性)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같은 형태로도 장소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도 읽히는 것이다. 이러한 기호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인 예술가가 동 시대에 살고 있는 관객과의 사회적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생각하기’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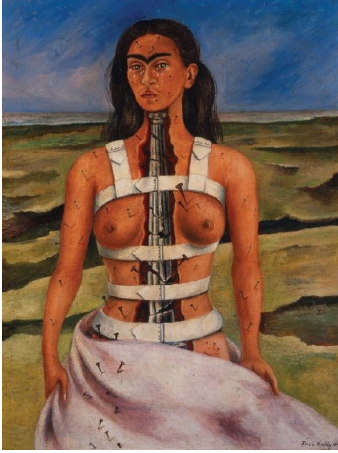
철학적 배경에서 탐구한 것과 같이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접한 이 사회의 문화는 위와 같은 이론을 배경으로 말하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라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욕망과 소비의 체계를 벗어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삶 속에서 본인의 작품은 그 체계의 질서와 이를 부정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관찰하고 이러한 풍경과 소재를 기호(記號)라는 방식으로 해석하여 이를 이미지로 기록하였다. 작업의 표

현기법에 있어서 번지는 기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런 모호한 인물 표현은 장지만의 특색을 살리고자 한 시도이며, 이론적 토대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동양화 표현기법의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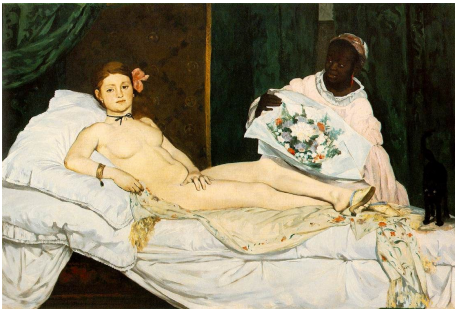
반면에 시대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본인의 작업과정에서 그동안 교육되어 온 사고와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터부들이 작업의 방향을 흐트러 놓기도 하였다. 또한, 그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다가갈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론적인 인간본성의 연구와 사회적 체계, 이들 구조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이들의 현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자 본인이 해야 할 일의 기준점을 잡고 다가갈 수 있었다. 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하여 본인이 느끼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 알림으로써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각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표현 전달에 있어서 대상의 특성을 탐구하여 제시한 표현법은 소통에 있어 본인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에 관한 소외된 다양성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본 작업을 통해서 사회의 주입이 아닌, 스스로의 의문과 연구로 본인의 정체성과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가감 없는 자기반성을 통해 이 사회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계기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본인이 깨달은 것을 관객 모두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는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지지해 주는 관객을 만나면서 본인의 의도가 어긋나게 맞아 떨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본인의 언어를 소통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포괄적인 이해와 함께 이미지 표현법에 있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느낀다.

참 고 도 판



【도판1】 프리다칼로, 부서진 기둥, 캔버스에 유채, 40x30.5cm, 1944.



【도판 2】

좌) 에두아르 마네, 올랭피아, 캔버스에 유화, 130×190cm, 1863, 오르세 미술관 소장.



【도판 3】

우) 신윤복, 청금상련(廳琴賞蓮), 지본담채(紙本淡彩), 35.3 x 28.2cm, 18세기경, 간송미술관 소장.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선남. 『매스미디어와 여성』. 범우사, 1997.
- 돈 슬레이터. 『소비문화와 현대성』. 정숙경 역. 문예출판사, 2000.
- 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최인철 역, 김영사, 2004.
- 리처드J. 번스타인.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문제』. 김선옥 역. 아모르문디, 2009.
- 레오나르도 아담. 『원시미술』. 김인환 역. 동문선. 1999 : p115
- 막스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1995.
- 미셸 푸코(Michel Paul Foucault). 『성의역사』. 이규현 역. 나남, 2004.
- 자크 라캉. 『욕망이론』.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94.
-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조한경 역. 믿음사, 2011.
-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의 역사』. 조한경 역. 믿음사, 1998.
- 최광진. 『현대미술 전략』. 아트북스, 2004.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이태호 역. 한길사, 2012.
- 현실문화연구 저. 『광고의 신화, 욕망, 이미지』. 현실문화연구, 1993.

학위논문

- 박영미. 『유가 욕망론의 도덕교육적 함의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송지연. 『페미니즘 회화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사이트

<http://www.wikipedia.org/>

<http://people.search.naver.com/>

ABSTRACT

A study on the Painting Expression of Landscapes of Desire

- Focused on my work -

Kim Yoon-mi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was written with a focus on my works from 2011 until 2012, especially on 'the city's neon (2012),' the work for my master's degree. It started with a person's eyes on the landscape of the time in which I live. This eye refers to both sides of the phenomena in which members of the society must go through in the process of consuming their desires as nature and the taboos deeply rooted in the society which, contrary to man's natural psyche, ban and cover up this phenomena. With understanding of man's natural psyche and social order, ideology of the society is something unfamiliar but nothing different from the general social phenomena in my eyes on these landscapes. This thesis deals with

how the author expresses the images living in such a context artistically. My doubts on contradictory social phenomena led to inquiry into human nature, social ideas of the good, our social structure and then observation and investigation of women's human rights, which finally set about my work this time.

Man knows he must die though he doesn't want to perceive it in the process of living so he seeks for his continuity over this limitation by producing his alter ego. All living things in the world of nature go into this production, but ironically, man doesn't have sexual intercourse only for his offspring. As human mind has no fixed limitations or borders, human desire has no clear end. While man has to be born and reach his last days with such desire, the society has put many formalities and taboos in our course of life. Each of these taboos and encouragements has its own cause, but a little deeper looking into it reveals that this problem is packed up with reasons of religion, etc.

People, as members of the society living in these times, tend to judge things to be right or wrong depending on the dichotomy required by the society calling most contradictions out of clear regulations of the good evil. Aside from human nature, they have many conflicts between their desire and reason to comply with the idea of Good stipulated by the society, which leads them to a guilty sense.

Contrary to the concept of good in superficial demand, the world

incessantly incites people into desire. We are just onlookers in the society reduced to the subject of consumption from the past being of production. People still wander about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in their thirst for taboos placed on them.

This thesis tries to look for desire in human nature in a philosophical context and illuminate the scenery of social taboos as a code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content in it. Observing the phenomena beneath the society, I tried to express by imagery the story told by those who are the outcast on the ideology required by the society providing the regular labor of sex to maintain their life in such taboos. It was an attempt to look at the desire belonging to human nature from a sociological viewpoint and express my thoughts about it in artistic language through the medium of painting,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considering the scenery of desire.